팔씨름·격투·스턴트… 서바이벌 예능 소재 다변화 고군분투

“차별화 실패하면 시청자 외면” 두뇌 서바이벌은 새 설정 고민

아이돌 오디션으로 대표되던 서바이벌 예능이 팔씨름, 두뇌 싸움, 격투 등 다양한 소재를 선보이고 있다.

27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가 이번 주 팔씨름 최강자를 가리는 예능 ‘오버 더 톱-맨즈 챔피언십’(이하 ‘오버더톱’)을 처음 방송한 데 이어 tvN은 11월 스턴트맨 서바이벌 ‘슈퍼액션’을, SBS는 12월 격투기 일인자 선발 예능 ‘순정 파이터’를 방송한다.

‘오버더톱’ 첫 회에는 일반부, 학생부, 운동선수부, 연예셀럽부로 나뉜 참가자들이 예선전을 치르는 모습이 담겼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놀이인 팔씨름이 긴장감 넘치는 승부로 그려지면서 새로운 느낌을 줬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윤현준 CP(책임 PD)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최초의 팔씨름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팔씨름을 잘할까 하는 의문에서 기획됐고, 고수 위의 고수가 등장한다는 것이 재밌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실제 서바이벌 예능은 어떤 한 분야의 일인자를 뽑는 과정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그동안 TV에서 보지 못했던 신선한 소재나 접근 방식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가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팔씨름, 격투 등 다양한 소재의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서바이벌을 다룬 채널A·ENA의 ‘강철부대’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강철부대’는 치열한 경쟁을 내세우며 군대 예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외줄 타기, 잠수 등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뛰어난 실력과 극한 상황을 돌파하는 고도의 전략 등이 매회 화제가 되면서 팬덤이 생겨났고, 남성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군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인 씨름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예능도 나왔다. tvN스토리와 채널A는 이달 각각 ‘씨름의 제왕’, ‘천하제일장사’를 시작했다. 모래판 위에서 씨름 최강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 놀이인 씨름의 부활을 응원한다”, “케케묵은 유물인 줄 알았던 씨름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두뇌·심리 싸움으로 최종 승자를 뽑는 서바이벌 예능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차별화되는 설정을 도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MBC ‘피의 게임’은 배신, 거짓, 음모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상금을 독차지한다는 설정을 내세웠고, 카카오TV ‘생존남녀: 갈라진 세상’은 참가자들을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나눠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티빙 ‘제로섬게임’은 참가자들의 몸무게를 소재로 심리 게임을 벌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화제가 됐다. 참가자들은 몸무게 총합을 유지하는 전체 미션을 수행하면서 투표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눈치 싸움을 벌였다.

이처럼 서바이벌 예능이 새로운 소재나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SBS가 ‘강철부대’ 종영 이후 5개월 만에 선보인 군대 예능 ‘더솔져스’는 자체 최고 시청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더솔져스’는 세계 밀리터리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강철부대’와 유사하게 특수부대 출신 참가자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치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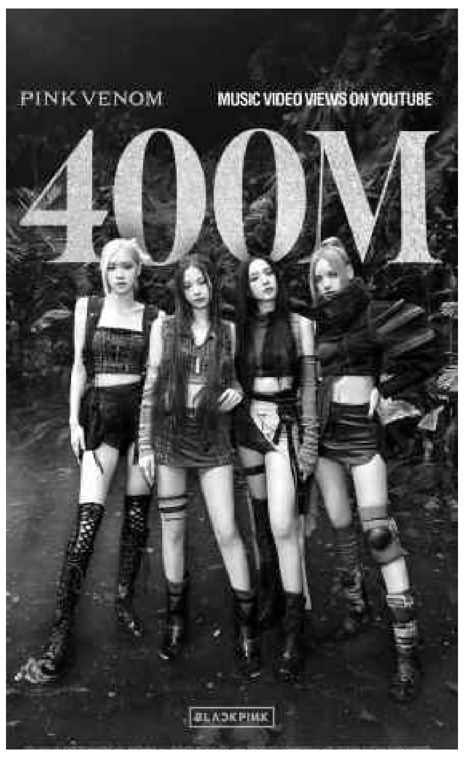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서바이벌 예능은 어떤 포맷이든 결국 다 생존 게임”이라며 “참여자를 바꿔도, 미션을 바꿔도 생존이 똑같은 목표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식상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바이벌 예능이 다각화된 것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지표이기도 하다”며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이 주는 묘미가 있지만, 세상은 이런 경쟁에 질려있다. 미션을 수행할 때 팀워크를 보여주는 등 협업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별화를 위해 점차 자극적으로 흐르는 서바이벌 예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초반 서바이벌 예능이 누구의 재능을 보고 같이 공감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삶 자체를 서바이벌로 옮겨갔다는 느낌이 든다”며 “누가 이길까 조마조마 지켜보는 재미는 있지만, 극한 상황에서 출연자들이 보이는 과한 반응 등이 불러일으키는 논란 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핑크 베놈’·‘셧 다운’ 뮤비 조회 수 4억·2억뷰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수록곡 ‘핑크 베놈’(Pink Venom)과 ‘셧 다운’(Shut Down)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각각 4억·2억건을 넘겼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선공개곡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9시 37분께 4억뷰를 넘겼다.

이는 지난 8월 19일 공개 이후 68일 만이다.

‘핑크 베놈’은 24시간 만에 유튜브 9040만 조회 수를 기록해 K팝 걸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인 29시간 35분 만에 1억뷰를 달성한 바 있다.

타이틀곡 ‘셧 다운’ 뮤직비디오는 공개 41일 만인 이날 0시 34분께 2억뷰를 돌파했다.

블랙핑크는 이들 노래가 담긴 2집 ‘본 핑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이에 세계 양대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최초의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늦가을 감성 발라더로 돌아온 로이킴

정규 4집 ‘그리고’ 발매 “새 음반 너무나 만족해”

“음반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은 고민도 담았어요. 이번 음반은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본명 김상우·29·사진)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신보를 향한 자부심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로이킴이 이날 발매한 정규 4집 ‘그리고’는 2020년 발매한 싱글 ‘살아가는 거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음반이다. 정규 음반으로는 ‘북두칠성’ 이후 7년 만이다.

로이킴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수록곡에 담았다”고 신보를 소개했다. 신보에는 타이틀곡 ‘괜찮을거야’를 비롯해 지난 14일 선공개된 ‘그때로 돌아가’, ‘그대에게 닿을 때까지’, ‘어른으로’, ‘그냥 그때’, ‘시간을 믿어봐’, ‘들어봐’, ‘오늘 밤만큼은’, ‘결국엔’까지 늦가을 감성을 담은 발라드곡 9곡이 수록됐다.

‘괜찮을거야’는 ‘아무리 소리쳐봐도, 괜한 곳에 기대어 봐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아있는 건 외로움뿐이지만’이라는 노랫말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로이킴은 “누군가가 안부를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나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했던 순간이 살면서 많지 않았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백기 이후) 첫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이 곡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지나온 다음 그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제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이 곡을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리멤버’·‘자백’, 개봉 첫날 나란히 박스오피스 1·2위 진입

‘블랙 아담’ 3위로 내려앉아

국산 영화 ‘리멤버’와 ‘자백’이 개봉 첫날 나란히 박스오피스 1·2위에 올랐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성민 주연작 ‘리멤버’는 전날 관객 4만 7000여명(매출액 점유율 27.0%)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소지섭·김윤진이 주연한 ‘자백’은 4만 3000여 명(25.3%)의 관객을 동원하며 뒤를 이었다.

지난 19일 개봉 이후 일주일 연속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리던 DC 새 히어로물 ‘블랙 아담’은 전날 하루 2만 8000여 명(17.0%)을 모으는 데 그치며 3위로 내려앉았다.

‘리멤버’는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필주(이성민 분)가 60년여 전 일제강점기 당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친일 인사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자백’은 밀실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인 유민호(소지섭)와 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양신애(김윤진)가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대 연 건 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